

48시간 추격 끝에 차 도둑 잡은 여성

지난 9일 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한 주유소. 다니엘 리노(34·사진)가 차에서 먼저 내린 딸을 붙잡기 위해 뒤따라 내린 사이, 그녀의 자동차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누군가 그녀의 차를 몰고 달아난 것이다.

리노는 곧장 도난신고를 했고, 경찰은 차 안에 있던 휴대전화 위치부터 파악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전원은 꺼져 있었고 당장 소재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든 그녀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직접 도둑들을 추적하기로 했다.

10일 새벽 1시 30분. 고민에 빠진 리노에게 카드 사용 알림문자가 날아왔다. 도둑들이 차 안에 있던 리노의 지갑에서 카드를 훔쳐 차량 도난 지점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것이다. 리노는 카드를 정지시키고 도둑들이 머물렀던 주유소를 찾아갔다. 주유소 직원은 리노의 차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도둑들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알지 못했다.

리노는 생각 끝에 카드 정지를 해제시켰다. 그녀는 "이들을 쫓기 위해 일단 분실신고를 했던 카드 정지를 풀었다." 고 설명했다. 도둑들은 정지가 풀린 그녀의 카드를 다시 사용하며 다녔고 리노는 사용 장소를 따라 그들을 쫓았다.



11일 밤 9시. 마지막으로 카드가 사용된 레스토랑으로 찾아간 그녀는 드디어 감시카메라에서 봤던 도둑과 마주쳤다. 리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리노는 "여동생과 함께 레스토랑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고개를 돌린 순간 CCTV에서 봤던 3명의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면서 "너무 떨렸지만 즉시 여분의 키를 들고 나가 내 차를 찾았다." 고 설명했다. 리노는 이 장면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했다. 도둑들은 즉시 체포되었고 48시간에 걸친 리노의 추격도 끝이 났다.

리노는 "도둑들이 훔쳐 간 차를 내가 다시 훔치는 그 순간 아드레날린이 폭발했다. 굉장히 짜릿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새끼 때 우연히 플라스틱 고리에 머리가 끼인 뒤, 몸집이 자라면서 점점 고리가 목을 조여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상어의 모습이 공개됐다.

미국 해양 과학자인 제임스 솔리코우스키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최근 메인주 해안에서 길이 214cm에 달하는 거대한 비악상어(porbeagle Shark)를 발견했다.

당시 상어의 목에는 플라스틱 소재의 고리가 단단하게 묶여 있었고, 이 고리가 목을 조여 머지않아 목이 잘려나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상어에게 이러한 고통을 안긴 플라스틱 고리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였다.

전문가들은 상처 정도로 봤을 때, 문제의 플라스틱 고리가 새끼 때부터 상어의 목 주위에 박혀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몸집이 커질수록 플라스틱 고리가 상어의 목을 더 조여왔고, 상어의 목은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손상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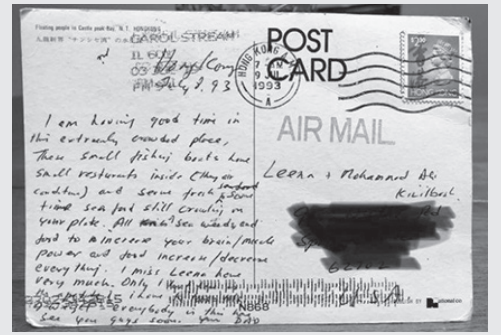
이에 솔리코우스키 박사와 동료들은 곧바로 상어의



목에서 플라스틱 고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상처를 치료한 뒤, 상어가 상처를 잘 회복하고 원활하게 서식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추적기를 부착시키고 다시 먼 바다로 돌려보냈다.

솔리코우스키 박사는 "이 상어는 다 자라면 몸 길이가 300cm를 훌쩍 넘기기도 한다. 몸집이 커질수록 플라스틱 고리가 피부와 근육을 파괴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면서 "인간의 쓰레기가 해양 야생 동물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공개했다." 고 말했다.

26년 만에 도착한 엽서



얼마 전 일리노이주에 사는 한 여성에게 26년 전 홍콩에서 보낸 엽서(사진)가 도착했다.

17일 '연합뉴스'가 CNN의 이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집 우편함에서 엽서를 발견한 킴 드레이퍼는 "엽서의 상태가 아주 양호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이웃의 편지가 잘못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드레이퍼는 이 엽서가 26년 전 보낸 것이라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다. 엽서는 1993년 7월 8일 홍콩에 있던 한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자녀 부부 '리나'와 '무함마드 알리 키질바시'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드레이퍼는 4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온 뒤로 '리나'와 '무함마드'의 이름으로 온 편지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사이 집 주인이 바뀌기는 했지만, 정확한 주소로 엽서가 도착한 것이다.



뭇단배가 가득한 홍콩의 항구가 그려진 엽서 첫머리에는 "나는 아주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적혀 있다. 엽서는 딸로 추정되는 '리나'가 "정말 보고 싶다."는 말로 끝맺음 뒀다.

드레이퍼는 "만약 내 아버지가 오래전에 내게 보낸 편지가 있다면 다시 받아보고 싶을 것"이라며 엽서의 주인을 찾아나섰다. 그는 이 집을 팔았던 중개인을 수소문하고, 재산세 기록을 찾아봤지만 리나와 무함마드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드레이퍼는 사연을 공개하면서 "엽서의 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이야기가 닿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999

Implant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400

잇몸치료 ~~\$600~~ \$400

틀니 ~~\$1200~~ \$850

KMC Dental Group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